

2025년 9월 셋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2025년 9월 셋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1) - 감사와 회복의 기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1)

2025년 9월 셋째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실한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해봅니다. 이 계절에 맞는 마음을 담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회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도 절반을 넘기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감사뿐입니다.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쉼 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앞에 다시 서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가을바람이 부는 이 계절, 우리 안의 상처와 아픔도 주님의 손길로 덮어지게 하소서. 각 가정마다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닌, 진정한 헌신의 자리 되게 하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줄을 붙잡고 가을의 삶을 단단히 걸어가게 하소서. 삶의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9월 셋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2) -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임이라” (이사야 33:6)

2025년 9월 셋째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신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학업과 진로,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그들이 스스로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소서. 청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길 위에서 걸어가게 하소서.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꿈과 비전이 주님의 뜻과 맞닿아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세대를 품을 수 있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세우는 부모와 교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본이 되며, 교회가 따뜻한 품이 되어주게 하소서. 주님, 다음세대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9월 셋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3)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1)

2025년 9월 셋째주,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연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몸 된 공동체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받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툼이 아닌 평화, 경쟁이 아닌 섬김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안의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을 기억해 주소서.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손 내밀게 하시고, 그들을 진심으로 품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소외된 이들까지도 포용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주소서. 각 부서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고하는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열매맺게 하소서.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는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작은 봉사 하나, 진심 어린 기도가 큰 울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